

안태석, 장선숙 선교사 7 월 기도제목

‘나’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교회의 사역자로 훈련 받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? 작년에 사역자로 헌신했지만 두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, 또 자녀들의 교통사고와 사춘기, 본인의 건강의 어려움 등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. 사실 태국인 중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사역자로 결단한다 해도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계속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.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심한 듯 기다려 주었습니다. 때로는 절실해 하는 물질로 회유하고 싶고, 그 어떤 약속으로 따라오게 하고 싶은 마음도



<“나”와 함께>

때론 간절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기에, 또 ‘나’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. 처음 시작은 주 3 일 사역하고 4 일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.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하고 또 저희들과 공부하면서 가장 자신 없어하는 신학공부도 통신으로 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큰 은혜만 붙들고 가야 하는 걸음입니다. 걸음마다 하나님이 두 손 잡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.

<감사 제목>

영육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, 성도들이 구약성경 시리즈 설교를 통해 구약역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함에 감사, 매일 성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, 2 명의 성도가 세례 공부와 여러 작은 소그룹 성경공부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, 자녀들을 주의 손아래 지켜 주심에 감사, 한 달 동안 풍성하게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

< 6 월 27 일 주일 예배 전경 >

<기도 제목>

1. 공황: 태국은 4 월부터 확산된 코로나로 매일 약 4 천명의 감염자가 나옵니다. 저희들이 있는 딱지역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. 태국정부에서도 백신주사를 실시하지만 아직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. 저희는 타지역 개인 병원에 백신을 예약한 상태며 10 월 이후에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하나님의 공황하심으로 태국을 보호하여 주시길, 또한 코로나로 상황 가운데 순간마다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. 딱 교회: 1) 6 월부터 작은 소그룹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. 특히 8 월에 있을 세례식 전에 성경공부를 시작한 “뽐과 떠”가 하나님께 누구이신지 알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도록. 2) 새신자 “웬과 뽐램”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. 3) 7 월에 계획 중인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한 위문품 50 상자를 나누는 일에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감사로 동참 하도록 4) 8 월 첫째 주에 있을 운영위원 1 명 선출과 둘째 주 세례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



< 세례전 성경공부하는 뽐과 떠 >

3. 사역자: 통신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“나” 가 잘 훈련 받고 사역자로 서 갈수 있도록, ‘간’이 학교 공부를 힘들어 하는데 잘 마치고 사역자로 잘 준비되어 가도록, 하나님께서 조이와 독마이부부의 신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길, 인턴’께오’가 이곳에 온지 3 달이 되었는데, 사역자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‘께오’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

전 화 : 070 8251 0151(인터넷폰) / ++66 845 307 544(태국)

이 멜 : taeseok77@hanmail.net/ ~@gmail.com / 카 톡 ID : Simplelifepeter

빌 4: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